

# HEREN

SEPTEMBER 2016



PIAGET



## BETTER LIFE FOR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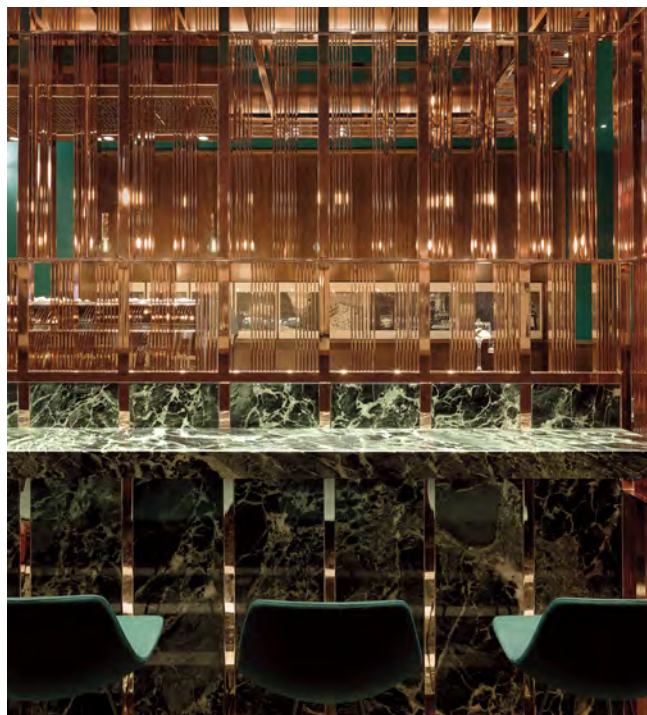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벤틀리가 만든 차 안의 가구

자동차는 또 하나의 집과 같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사적인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벤틀리의 개별 맞춤 서비스 Mulliner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그 옵션만 무려 12만여 가지에 이른다. 그중 최근 선보인 벤틀리 벤테이가 플레이 피싱 바이 Mulliner Bentley Bentayga Fly Fishing by Mulliner는 낚시를 사랑하는 이들을 겨냥해 새롭게 출시된 라인이다. 낚시에 필요한 용품을 두루 갖춘 상자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방수와 제습 장치를 갖춰 낚시 후 뒷정리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물가에 차를 세운 뒤 만끽하는 여유로운, 편안한 분위기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게 해줄 이상자는 차 안의 가구다. PSH

### 기차역 에스프레소 바

진한 에스프레소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지나가던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피렌체에 위치한 베이커리 바이타 산타 마르게리타 Vyta Santa Margherita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의 대합실이었던 건물을 새롭게 복원해 최근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 다니엘라 콜리의 손길로 완성되었다. '빵집'으로 변신한 '기차역'은 소박한 인테리어와 따뜻한 분위기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색다름을 선사한다. 구리와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인테리어가 현대식 베이커리, 이른바 '에스프레소 바'를 제시한다. 어느 날 바 체어에 앉은 여성이 "여기 빵 하나 주세요"라며 뜨거운 눈빛을 보낼지도 모를 일이다. PSH



### OH, HONEY!

도심 양봉을 해본 적이 있다. 수십만 마리의 일벌이 평생 열심히 날라야 꿀 한 스푼 정도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꿀 한 방울이 금가루처럼 느껴졌다. 좋은 환경에서 생산된 꿀은 단연 더욱 좋을 터. 멜비타의 라임 트리 허니는 유럽 남부 지역의 양봉가들이 합성 살충제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영양 성분을 보존하기 위해 과열 과정 없이 채취한 꿀이다. 검증이 까다롭다는 에코서트 인증까지 받은 제품. 기분 좋은 민트 향을 코끝으로 느끼며 매일 아침 레몬을 띄운 물에 한 스푼씩 넣어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PEA